오거스타 대역전 드라마 쓴 슈워첼 "나는 땀 흘리며 일하기를 즐긴다"

마스터스 '그린 재킷' 입다

4월 초이지만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수은주는 32도를 넘었다. 경기의 열기는 뜨거운 태양 이상으로 달아올랐다. 선두에 나서 본 선수는 8명이나 됐다. 그중엔 타이거 우즈(미국)와 최경주(41·SK텔레콤)도 있었다. 10명이 넘는 선수가 우승권에 머물렀다. 한 번 실수면 나락, 버디 하나면 선두로 치고 나가는 팽팽한 긴장감이 시즌 첫 메이저대회를 휘감았다. 그러나 칼 슈워첼(26·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를 선두에 4타 뒤진 채 시작해 역전우승을 거뒀다. 그린 재킷은 그의 것이었다. (관계기사 28, 29면)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끝난 마스터스 골프에서 슈워첼이 합계 14언더파로 애덤 스콧(호주) 등을 2타 차로 제쳤다. 최경주는 8언더파 공동 8위에 머물렀다.

슈워첼은 새벽과 고독을 사랑하는 사나이다. 그의 집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외곽에서 양계장을 했다. 슈워첼은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자신이 농장 소년이라 생각했고 양계장 일을 하며 자랐다. 슈워첼은 "그건 노동이 아니다. 나는 땀을 흘리며 일하기를 즐긴다"고 말했다. "농장의 이른 새벽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도 했다.

슈워첼은 최근 세스나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땄다. 새벽에 농장에 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홀로 하늘을 나는 시간이 좋다고 한다.

슈워첼은 "아버지에게 우승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 조지는 남아공 투어에서 프로선수로 활약했다. 1987년에는 남아공의 골프 영웅 어니 엘스와 한 조로 베터 볼 대회에 출전해 우승하기도 했다. 그는 아들의 스승이다.

조지는 투어 생활을 접고 고향 농장에 돌아가 두 아들과 자주 볼을 쳤다. 그는 아주 쉽게 골프를 가르쳤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골프를 배운 아들의 스윙은 남아공의 대지를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굳셌다. 슈워첼은 지금도 스윙이 흐트러지면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스윙 체크를 받는다.

슈워첼은 최경주와 한 조에서 경기했다. 첫 홀에서 약 30야드짜리 칩샷을 집어넣었고 3번 홀에서는 페어웨이에서 이글을 성공했다. 4번 홀부터 14번 홀까지 버디를 만들지 못했지만 버텼다. 15번 홀에서 티샷을 숲으로 보냈지만 옷에 묻은 낙엽을 털듯 침착하게 레이업한 뒤 버디를 잡아냈다. 이후 남은 3개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막판에 스퍼트,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올해는 남아공의 첫 마스터스 우승(61년·게리 플레이어) 50주년이 되는 해다. 플레이어는 "샷 능력이나 멘털 등에서 슈워첼이 나의 후계자"라고 말했다.

오거스타=**성호준** 기자 karis@joongang.co.kr

마스터스 최종성적

1	칼 슈워첼	-14
2	제이슨 데이, 애덤 스콧	-12
4	타이거 우즈, 제프 오길비, 루크 도널드	-10
7	앙헬 카브레라	-9
8	최경주, 보 반 펠트	-8
10	라이언 파머	-6
20	양용은	-3
44	김경태	+3

새벽이 아름다운 남아공 농장 자연 속에서 즐기듯 골프 배워

아버지 뛰어넘는 선수 됐지만 지금도 아버지 찾아 레슨 받아

마스터스에서 최종일 역전 우승을 차지한 칼 슈워첼(왼쪽)이 그린 재킷을 입고 있다. 전년도 우승자(필 미켈슨·오른쪽)가 새 챔피언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주는 것은 오거스타의 오랜 전통이다. [오거스타 로이터=연합뉴스]

교수협 "KAIST는 새로운 리더십 필요" 오명 "서남표 총장 거취 논할 때 아니다"

〈KAIST 이사장〉

학생과 교수의 잇따른 비보에 KAIST는 충격에 휩싸였다. 11일 서남표 총장이 KAIST 본관을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비상총회에 참석한 교수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운데 사진). 학생들이 '서남표식 경쟁적 학교 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연합뉴스]

긴박했던 KAIST 하루

11일 오전 10시30분 KAIST 본관 1층 회의실. 서남표 총장이 학·처장 혁신회의를 주재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회의였지만 이날 분위기는 달랐다. 올해 들어 학생 4명과 교수까지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직교수(20여 명)만 참석하던 종전과 달리 학과장 20여 명까지 비상소집됐다. 회의시간도 점심시간을 넘긴 낮 12시20분까지 이어졌다. 서 총장은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회의 뒤 서 총장은 교수협의회 간부들과 캠퍼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서 총장은 "교수협의회가 앞장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오후에는 12일의 국회 출석에 대비해 공관에서 답변 준비를 했다. 서 총장은 4년8개월간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KAIST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학생과 교수 자살로 인해 서 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날 캠퍼스 창의관에서 열린 교수비상총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교수협의회가 갑자기 비상총회를 소집했는데도 220여 명의 교수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다. 일부 교수는 "총장의 거취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장의 거취를 들먹이는 것보다는 사태 수습에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교수들은 격론 끝에 '교수협에서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KAIST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희일성과 일방통행은 창의성의 적"이라고 밝혔다.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새로운 리더십 요구의 의미에 대해 당장 서남표 총장의 사퇴를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개혁에 따르는 고통은 감내해야 하지만 서 총장의 개혁은 많은 그늘이 있었고 구성원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갔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도 이날 서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KAIST 학생들의 자살 이유로 꼽히는 징벌적 차등 등록금제 등이 공익 저해요소가 있다며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남표 총장 학장·학과장 회의 비상소집 "교수·학생 힘 모아 난국 극복"

교수 220명 비상총회 한상근 "영어강의 거부하겠다" 정재승 "서 총장 혼자 책임이냐"

완전 영어강의 거부를 선언한 교수도 나왔다. 영어강의는 서 총장 개혁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수리과학과 한상근(55) 교수는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앞으로 모든 강의를 우리말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영어강의가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적 접촉을 단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삭막한 학생들의 정서를 더 삭막하게 하는 게 영어강의라고 주장했다.

이런 학내 분위기를 반영하듯 KAIST 학생들의 휴학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학부생 휴학생은 2009년 1학기 620명, 2010년 1학기 753명에서 올해 1학기 86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입학 정원이 970명인 점을 감안하면 입학생 수에 맞먹는 휴학생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서 총장을 옹호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서 총장 격려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총장님 힘내세요'라는 글을 올린 4학년 휴학생은 "학비를 부과하면서 '책임감'을 강조한 서 총장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감정적으로 총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했다. 정재승(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는 트위터에 "이번 사태가 어찌 서남표 총장 혼자만의 책임이겠느냐"며 "교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오명 KAIST 이사장은 "지금은 서 총장의 거취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 총장은 개혁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현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KAIST 총학생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경쟁 위주의 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오명 KAIST 이사장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서 서 총장 해임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전=**김방현·신진호** 기자 kbhkk@joongang.co.kr

총학생회 긴급 회견 "경쟁 위주 제도 철폐하라" 일부 학생은 "서 총장 지지"

국회 대정부질문서 논란

국회에서 KAIST 서남표 총장 퇴진론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서 총장 퇴진 카드'를 꺼내들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김상희 "서 총장 사퇴시켜야" 김황식 "개혁 긍정 역할한 분"

▶김재윤 의원=KAIST가 사람 잡고 있습니까?

▶김황식 총리=여러 가지 안타까운 대목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5일 KAIST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압니다.

▶김 의원=학생 네 명, 교수 한 명이 자살했어요. '대(大)비극'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이 계속 다그쳤으나 김 총리는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조사를 한 뒤에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한다"며 서 총장의 거취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징벌적 등록금' 제도 시행으로 지난 3개월 동안 4명의 인재들의 생을 마감하게 한 KAIST 총장은 사퇴시켜야 한다"고 다시 몰아붙였다. 그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유흥업소를 기웃거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자살을 고민하는 게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서남표) 총장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대학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임 여부가)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 총장은 12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나와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서남표, 신임 교원 뽑을 때 인사위 심의 안 거쳐"

교과부, KAIST 감사 결과

KAIST 서남표 총장의 거취를 놓고 대학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 총장 개인과 대학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적발한 정부의 감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1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을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공했다. KAIST에 대한 감사는 지난 2월 진행됐다.

서 총장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학교 측이 연금 가입을 위한 개인 부담금(1360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총장이 취임 당시 만 70세인 탓에 연금 가입 연령(65세)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또 서 총장은 봉급 이외에 추가 지급 수당으로 5만1751달러를 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교과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연금을 해지하고 징계 등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KAIST 이사회에 요청할 서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 밖에 신임 교원을 채용하면서 학과장 추천이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살한 박태관 교수를 포함해 교수 3명이 학생 인건비 2200만~244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수에게는 중징계 요청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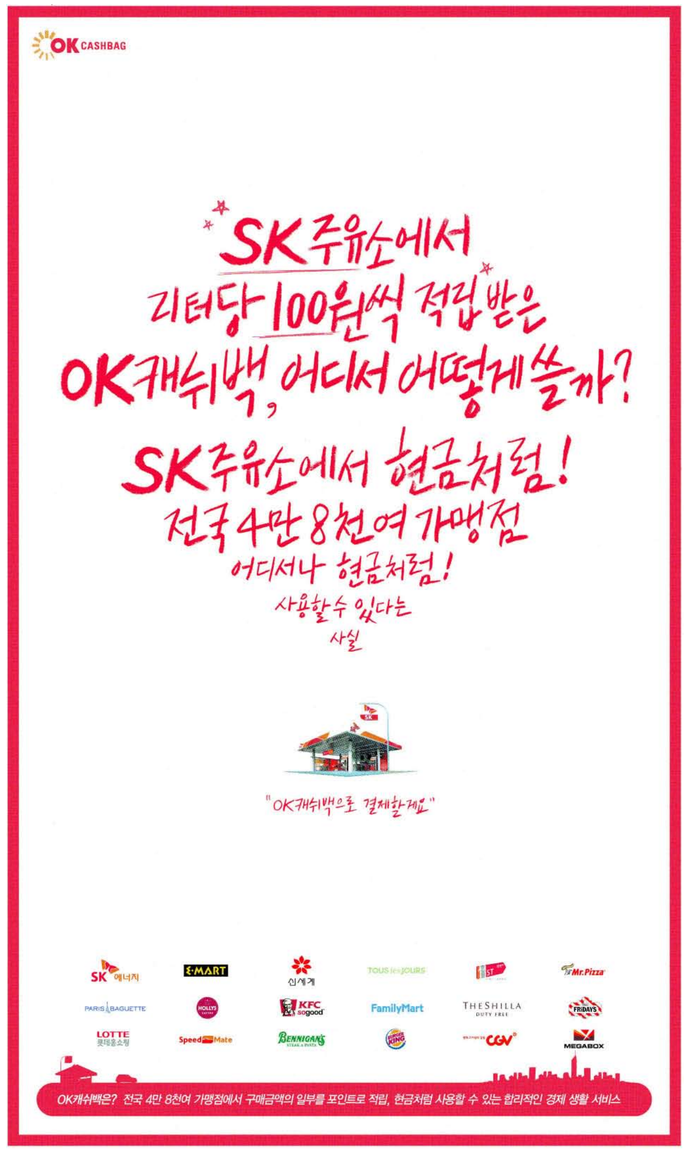
임시 관련 비리도 포착됐다. KAIST는 관련 법령을 확대해석해 1990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국내에 있는 외국 고교를 졸업한 내국인에게 외국 고교를 다닌 것과 같은 자격을 줘 입시를 치르게 했다. 이 가운데 18명이 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4명은 교직원 자녀였다.

이와 관련, KAIST는 "연금은 공단의 허락을 받았고, 수당도 적법하게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 1면 '5만원권'에서 이어집니다

007 서류가방에는 1만원 1만 장이 들어간다. 1억원이다. 5만원권을 넣어보자. 5억원이 된다. 검은돈은 이렇게 부피를 키우고 있다.

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의 브로커인 유상봉씨가 로비에 쓴 돈도 5만원권이었다. 국회의원 줄소환 사태를 빚은 청목회 사건에도 5만원권이 주역이었다. 경기경찰청 수사과 간부는 "뇌물을 주거나 냄새나는 돈을 숨기려면 5만원권만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국회에서 "5만원권이 다 어디로 갔느냐"며 "지하경제 창궐에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상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이 시대,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5만원권은 최악의 주인으로 변할 수 있다.